

벌써 맥킨 효과?...광주 FC 2269일만에 서울 제압



**K리그 클래식 16R 3-2 승
체력 싸움·용병술 우위
9경기 연속 무승 탈출**

프로축구 광주 FC가 2269일 만에 서울 전 승리로 9경기 연속 무승 부진에서 탈출했다.

광주 FC가 지난 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2017 K리그 클래식 16라운드 경기에서 3-2 승리를 거뒀다. '캡틴' 송승민이 승리의 신호탄을 쏘았다. 전반 37분 주현우가 흘러준 공을 받아 송승민이 오른발로 서울의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장식했다.

이후 전열이 흐트러진 서울의 실수가 이어지면서 광주에 여러 차례 골 기회가 왔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1-0으로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 초반 분위기는 서울이 주도했다. 후반 3분 만에 서울 '캡틴' 곽태휘가 움직였다. 주세종의 도움을 받은 곽태휘가 머리로 동점골을 만들며 시즌 1호골을 기록했다.

그러나 수비수 김영민이 서울의 추격 분위기를 꺾는 골을 터트렸다.

송승민의 슈팅이 상대 맞고 흘러나왔고 김영민이 왼발로 서울 골대를 갈랐다. 2년 만에 터진 김영민의 골. 김영민이 "어떻게 넣었는지 골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순식간에 터진 극적인 골이었다.

이후 서울이 다시 휘청거렸고, 체력싸움에서 앞선 광주가 그라운드를 휘저었다.

남기일 감독의 용병술도 적중했다. 정영훈이 부상으로 쓰러지자 남기일 감독이 후반 26분 이우혁을 그라운드로 올렸다. 투입과 함께 골대 맞는 때에 슈팅을 날리며 궤조의 컨디션은 보인 이우혁이 멋진 중거리 슈팅을 선보였다. 대표할 슈팅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 우측 구석으로 빨라진 환상적인 골이었다.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짓는 골이 나오면서 서울의 움직임은 더 무뎠다. 경기 종료 후 광주가 서울 데안을 추가골을 넣기는



광주 FC의 본즈(34번)가 지난 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공을 다루고 있다. 광주는 이날 3-2로 이기면서 2269일 만에 서울전 승리를 기록했다.

<광주 FC 제공>

고향 팀이나 친정 팀이나...중립 지킬래요

9일 광주 찾은 기성용, 별도 행사 없이 관람...옛 동료 맥킨 등 만나

했지만 환호를 할 시간도 없던 상황. 결국 경기는 3-2 광주 승리로 끝났다. 2011년 4월 24일 1-0 승리 이후 2269일 만에 기록된 서울전 승리였다.

남기일 감독은 "승리가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광주 시민들에게 죄송했다. 더웠지만 시원한 골이 많이 나왔고 경기력도 괜찮았다. 값진 승리를 얻었다"며 "후반 초반 밀렸던 부분이 아쉽지만 나머지 35분은 우리가 지배를 한 경기라 생각한다. 선수들이 무장된 정신력으로 나온 것 같다"며 선수들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다. 승리를 이끌 '캡틴' 송승민은 "골을 넣기는 했지만 추가골을 넣지 못해 아쉽고 미안하다"며 "우리가 항상 첫 골을 넣고 추가골을 넣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다. 이번에도 비슷했지만 후반에 선수들이 각성하고 좋은 경기를 했다. 서울이 강팀이고 좋은 팀인데 우리가 준비를 더 잘했고, 체력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가대표팀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의 반가운 고향 나들이였다.

기성용이 지난 9일 K리그 클래식 광주 FC와 FC 서울의 경기가 열린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았다.

기성용에게는 의미가 많은 두 팀이다. 기성용에게는 고향팀이자 아버지 기영욱 씨가 단장을 맡고 있는 팀이다. 또 기성용은 광주 FC의 개인 최대주주(4000주)로 정단 당시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홍보대사로도 활동했다.

FC 서울은 프로 축구선수로서 첫발을 내디딘 기성용의 친정팀이다. 2006년 서울에 입단해 2007년 K리그에 데뷔한 기성용은 2009년까지 80경기에 나와 8골 12도움을 기록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기

반을 다진 그는 2009시즌이 끝난 뒤 영국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인 셀틱 FC의 유니폼을 입고 유럽 진출의 꿈을 이뤘다.

기성용은 이날 관람석에 앉아 각별한 두 팀의 경기를 지켜봤다.

기성용에게는 두 번째 광주월드컵경기장 방문이다. 지난 2015년 부친이 광주 FC 단장으로 선임된 뒤, 직접 광주를 찾아 경기장을 찾은 팬들과 하이파이브 행사 등을 하면서 광주 FC를 응원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행사는 마련되지 않았다. 의미가 남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었던 만큼 '중립의사'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기성용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됐다. 기성용은 이날 김호

고 스승인 최용수 감독 등 자신의 축구를 함께 한 이들과 옛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셀틱에서 그라운드를 누비던 '옛 동료' 맥킨과의 반가운 만남도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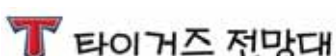
셀틱 시절 함께 했던 맥킨이 얼마 전 광주 FC와 입단 계약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 한국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이다.

미리 경기장에 도착했던 기성용은 뒤늦게 경기 제외조 선수들과 이동한 맥킨을 만났다. 포옹으로 서로를 반긴 두 사람은 한동안 대화를 이어가며 회포를 풀었다.

"(수술) 무릎 상태는 괜찮다"며 웃은 기성용은 "지금 광주 FC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힘든 것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팀이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만큼 광주가 남은 시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며 고향팀 광주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유일한 천적' NC 꺾기 '무패' 헥터 선봉



타이거즈 전망대

패배를 잊은 헥터가 '무결점 전반기'를 위한 마지막 등판을 나선다.

KIA 타이거즈가 11일부터 NC 다이노스와 홈 3연전을 치른다. 올스타 브레이크에 앞서 치르는 2017시즌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

앞선 대결과는 다른 긴장감이다.

KIA는 앞서 6월 23일부터 NC 안방에서 원정 3연전을 치렀다. 그리고 6월 25일 나성범의 역전 만루포와 함께 6-9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마산 원정에서 싸움이 3연패를 안고 돌아왔다. 이 패배와 함께 4월 14일 시작됐던 KIA의 단독 1위 행진이 끝났고, NC와 공동 1위가 됐다.

KIA의 거점 없던 1위 행진 속에 찾아온 최대 위기였다. 그러나 KIA는 NC전 3연패의 충격을 '미친 타격'으로 극복했다.

마산 원정 3연패 이후 KIA는 9승 1패의 질주를 했다.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1이닝 12득점 등 무시무시한 타격으로 NC전 싸움이 패의 충격을 극복하고, 1위 자리를 더 견고하게 했다.

KIA는 지난 8일 kt전 20-8 승리와 함께 이미 전반기 1위를 확정했다. 9일 KIA의 경기가 폭우로 노게임을 됐고, NC가 두산전 9-4승으로 반 경기를 줄였지만 두 팀은 5경기 차를 두고 서 있다. 남은 주중 3연전에서 3연패와 3연승으로

**'스윙패' 등 3승6패 열세
5게임차 여유에도 '점점'
가을잔치 위해 우위 필수
헥터 14연승·헥타선 기대**

두 팀의 성적이 엇갈리더라도 순위는 바뀌지 않는다.

불붙은 타격으로 화끈해진 덕아웃 분위기가 '5경기'라는 여유를 안고 2위 NC와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치르게 됐지만, KIA에는 욕심 나는 주중 3연전이다. KIA는 올 시즌 3승 6패의 상대전적으로 유일하게 NC에만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멀리 보면 NC는 '가을 잔치'에서 진급 승부를 벌여야 할지도 모르는 '난적'이기도 하다. 넉넉한 승차로 전반기를 마감하고 멀리 우승의 꿈까지 그리기 위해서 이번 3연전 우위가 필요하다.

총력전을 예고한 KIA의 마운드 전반기에 '무패행진'의 헥터가 선다.

노련한 헥터가 NC의 신에 좌완 구장 모를 상대로 올 시즌 17번째 이자, 전반기 마지막 등판을 소화한다.

헥터는 지난 4일 SK 켈리와의 대결에서 승리투수가 되면서 올 시즌 13번째 승리를 신고했다. 패배 없이 이어지고 있는 헥터의 연승이다.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계산하면 헥터

KBO리그 팀순위						※10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82	54	0	28	0.659	0.0
2	NC	81	48	1	32	0.600	5.0
3	SK	85	47	1	37	0.560	8.0
4	넥센	83	44	1	38	0.537	10.0
5	두산	79	40	1	38	0.513	12.0
6	LG	79	39	1	39	0.500	13.0
7	롯데	83	39	1	43	0.476	15.0
8	한화	82	35	1	46	0.432	18.5
9	삼성	85	32	3	50	0.390	22.0
10	kt	81	27	0	54	0.333	26.5

의 14연승이다. 헥터는 SK전 승리와 함께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이 가지고 있던 13경기 연속 승리는 팀 기록을 넘어섰고, 외국인 선수 최다 연승 기록인 넥센 벤해겐의 14연승과도 나란히 하고 있다.

패배 없는 무결점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려는 헥터의 뒤에는 든든한 타선이 있다. 올 시즌 KIA가 기록한 5번의 선발전원 안타 경기 중 4경기의 선발이 바로 헥터였다. 그리고 화요일에 강한 타이거즈이기도 하다. 올 시즌 KIA는 화요일에 11승 1패의 전적을 기록하면서 '화요일 이거'라는 애칭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눈길은 쏠리는 곳은 KIA의 득점관이다. 꺼질 듯이 꺼지지 않는 타격과 주전·비주전, 선배·후배 가릴 것 없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는 KIA의 방망이가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도 불을 뿜을 수 있을지 사람들의 눈길이 득점관으로 향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시간이 없다' 신태용호 소집일 1주일 앞당기기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직행 여부가 걸린 최종예선 마지막 2경기를 앞두고 예정보다 1주일 앞당겨 담담함을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9일 수원-제주간 K리그 클래식 19라운드 경기가 열린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찾아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

로축구연맹이 (대표팀 소집을) 1주일 앞당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며 조기 소집 추진 의사를 밝혔다.

대표팀은 이란과의 월드컵 최종예선 9차전 홈경기(8월31일) 서울 전인 8월 28일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모일 계획이지만 신 감독의 조기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8월 21일 소집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광주대, 대학농구 개막전 승

대학농구 사상 첫 정규리그 전승 우승을 거둔 광주대 여자 농구부가 MBC배 전국대학농구 대회 여대부 개막전에서 승리했다.

광주대는 10일 영광스포타움에서 열린 제33회 MBC배 단국대와의 경기에서 71대 47로 승리했다.

전년도 우승팀이기도 한 광주대는 이날 강유림(21득점 23리바운드), 홍채린(22득점 9리바운드), 김보연(11득점 3리바운드) 등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경기를 지배했다.

광주대는 2쿼터까지 28대 26으로 점점을 벌이다 3쿼터에서 20득점을 기록하며 단국대를 단 5점으로 묶으면서 리드해나갔고 4쿼터 초반 점수 차를 29점까지 벌리면서 대회 첫 승을 신고했다.

광주대 농구부 국선경 감독은 "최선을 다해 우승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대는 오는 12일 오후 1시 극동대학교와 MBC배 2라운드를 펼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남부대, KBS N 1·2학년 대학축구대회 3위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 축구부가 제 13회 KBS N 1, 2학년 대학축구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남부대는 지난 9일 강원도 양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관대학교와의 4강전에서 0-2로 져, 아쉽게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하지만 남부대는 개막전에서 '다들팅

챔피언' 안동과학대에 역전승을 거두는 등 좋은 승부를 이어가면서 대회 3위에 올랐다.

남부대 김성욱 감독은 "힘든 가운데도 묵묵히 훈련에 임한 선수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